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

김 정 우

(국어연구소 연구원·국어학)

I. 문제의 제기

“그것은 분명 윤리학의 모든 질문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매력을 끈다; 거기엔 포기나 회생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 반대인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로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과학과 기술이 있으며, 우리는 단지 어리석거나 불합리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갈라 들어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빈곤하고 불만족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고 또 마땅히 그들에게도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를 성급히 타도하거나 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부유한 자에게는 그들이 현명하게 가끔씩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전하면 되는 것이다.”

위의 글은 E.F. Schmacher의 ‘Small is Beautiful’을 번역한 책(‘작은 것이 아름답다’, 1980, 출판사 명과 번역자는 밝히지 않겠음)의 일부(pp. 19~20)이다. 번역의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번역의 목표가 동일한 정보(information invariante)의 전달에 있다는 일반론¹⁾을 받아들인다면, 번역의 결

1) 강희성(1987) 참조.

“기호론적 이론은 번역 현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하게 하여 준다.

1. 인위적 번역의 특징은 창의성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인위적 번역에는 미리 정하여진 규칙이 없고 선택적이라는 것.
2. 번역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번역의 목표는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
3. 번역의 충실성은 언어의 기능적 면에 있다는 것.
4. 전언체는 번역하는 사람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를 위한 정보는 언어적 맥락과 언어외적 부가 정보에 의하여 제공된다는 것.
5. 이러한 이중 분석은 전언체의 입력과 그에 일치하는 전언체의 출력 준칙에 따른 부호 선택에 불가결하다는 것.” (p. 37, 특히 2와 3 참조)

과물은 그 자체로 번역된 언어(target language)의 내면적 질서에 순응하여 읽는 사람의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위의 번역문은 국어의 일반 화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논지 전개에 앞서 이들 문제를 열거해 봄으로써 본고에서 다룰 내용의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윤리학의 모든 질문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매력을 끈다; 거기엔 포기나 회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문장부호(;)를 전후로 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어의 문장부호를 그대로 번역문에 가져다 썼기 때문에 국어의 독자는 읽으면서 이러한 문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금방 알아차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 즉 윤리학이 던지는 포기나 회생이라는 명제를 그것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매력을 끈다는 뜻이므로, 이 문장부호를 인과 표현의 접속어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 아래에 나오는 ‘...과학과 기술이 있으며, 우리는 단지 어리석거나…….’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쉼표(,)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집어넣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화와 풍요로의 길을……’

여기서 ‘~로의’라는 표현은 영어 원문의 전치사구(~<way> to~)를 명사화시킨 것인데, 이처럼 무리한 명사화보다는 전치사(to)에 담긴 의미를 살려서 ‘~에 이르는’이나 ‘~로 가는’ 정도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셋째, ‘우리는 단지 어리석거나……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단지’에 호응하는 말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전체의 문맥이 모호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은 영어 원문의 한정어(‘only’)가 수식하는 범위(scope)를 정확히 밝혀 주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이다. ‘단지’를 살린다면 ‘행동’ 다음에 한정사(delimiter)²⁾ ‘만’을 첨가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서술어에 ‘만’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넷째, ‘불만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에서는 형용사 ‘불만족한’이 거슬린다. 이 단어는 사전에도 없을 뿐더러, 그 뜻도 얼른 파악되지 않는다. 문맥상 ‘불만을 품고 있는’

2) Yang (1972)의 술어임.

정도의 뜻이므로 ‘불만스러운’이나 ‘불만을 가진’ 등의 표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단어와 국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 내지 용법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생겨난 문제이다.

다섯째, ‘빈곤하고 불만족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또……그들에게도 황금알을……’

이 부분에서는 ‘그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이것은 영어와 국어에서 각각 재귀화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다. 즉 ‘그들에게도’를 ‘자신들에게도’로 바꾸어 그 앞의 ‘빈곤하고……사람들’을 가리킴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무엇을 전하는지, 또 무엇이 혹은 누가 전하는지 분명치 않다. 영어 원문에서 주어의 파악하여 적절한 위치에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빈곤하고 불만족한 사람들에게는……부유한 자에게는’

이 부분에서는 대등한 자격으로 접속되는 두 어구가 하나는 복수로 하나는 단수로 나타나서 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소위 문장 작법상 평행성이 지켜지지 않은 예이다.

여덟째,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냐하면’과 ‘때문에’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 파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을 생략하는 편이 간결하고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흔히 번역문 투라고 불리는 전이어로 독자적 대응 번역에서 생겨난 잉여적인 표현이다. 굳이 직역을 고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책의 성격상) 이런 표현은 많지 않을수록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³⁾

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보았다.

“그것은 또한 윤리학이 던지는 모든 의문을 그대로 지나치기 때문에 매력
을 가지고 있다. 결국 포기나 회생은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평화와 풍요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위에서 열거한 번역문의 문제점을 그 발생 경위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대략 다음의 세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영어 원문 파악의 오류이고, 그 둘은 영어와 국어 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고, 그 셋은 국어 자체의 잘못된 사용이다. 그렇지만 이들 세 유형은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기보다 어느 정도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고에서는 원문에 대한 번역자의 어학적 능력이 문제되는 첫번째 부류를 일단 논의로 하고, 나머지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한다.

필자가 가진 어학적 배경의 한계로 그 원문(source language)은 영어에 국한시키고, 대상 자료도 극단을 피해서 일반 교양물 내지 가벼운 대중 소설 정도를 택하기로 했다.⁴⁾

II. 본 문

1. 인칭 대명사의 남용

국어의 구문에서는 특별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의 주어물 수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주어가 명사 아닌 대명사일 때는 이런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물론 주어 이외의 위치에서도 대명사는 생략되는 일이 많다. 아래의 예문에 쓰인 대명사의 용법을 보면 정상적인 국어의 문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⁵⁾

있으며, 따라서 어리석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살점을 저버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빈곤하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신들에게도 역시 황금달걀을 낳아 줄 거위를 조급하게 뒤엎거나 죽이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한편 부유한 사람들은 이따금씩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의 신념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 4) 앞으로 나올 예문의 출전을 표시하는 약호는 다음과 같다.

‘국제’ : ‘국제사회의 지향’(Road Maps to the Future), 1986, Y출판사.

‘역사’ :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1975, S출판사.

‘유다’ : ‘유다의 나무’(The Juda's Tree), 1988, S출판사.

‘천국’ :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Kingdom), 1973, J출판사.

(※ 가능하면 원문은 함께 실지 않았다. 설명의 편의상 필요한 부분은 번역문과 함께 실었다.)

- 5) 예문은 박명석(1973 : 54)에서 취했다. 참고로 영어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yeesook and her mother thought something very serious had happened. But when they heard that he just had met one of his old friends, (they) simply got lost in bewilderment.

“해숙과 그녀의 어머니는 무슨 굉장한 일이나 난 줄 알았다가, 그가 정다운 친구 한 명을 만났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아무 소리 없이 멍하고 있었다.”
(방점은 필자의 것임)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현상은 영어 원문의 독자 번역에서 비롯된다. 영어는 문장 구조상 주어가 필수적이어서, 서술어가 필수적인 국어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⁶⁾ 소위 비인칭 주어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영어에서 주어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번역문에 인칭 대명사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⁷⁾

(1) 그 자신은 그런 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그의 마음은 유쾌하지 못했다. (‘유다’ : p. 60)

(2) 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블라우스에 꽂아 놓았고, 이제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유다’ : p. 65)

(3) 그의 생각은 도리스에 대한 혐오감보다는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치달고 있었다. (‘유다’ : p. 135)

(※ 방점 부분은 필자의 것임—이하도 같음)

혹시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전부 옮겨 주는 것이 문맥의 혼란을 방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어 화자의 직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생각할 문제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읽기를 자주 중단시켜서 내용의 전개를 이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인칭과 2인칭 사이의 대화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국어에서 일반적이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4) (복잡한 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서로 전네는 인삿말로)

6) 언어의 기본 구조를 무엇으로 잡는 것이 그 언어의 기술에 적합한가에 따라 Li & Thompson은 언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주어가 현저한 언어(예, 인구어), 둘째, 화제가 현저한 언어(예, 중국어), 셋째, 화제와 주어가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예,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넷째, 화제와 주어가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언어(예 Tagalog어) 들이다. (채완 (1979 : 223)에서 재인용)

7) 앞으로 나올 예문의 표기 형태는 원래의 출전을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개정된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4') "너 어디 가니?"
"응, 나 집에 가."
(4") "어디 가니?"
"응, 집에 가."

아마도 (4")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대화문의 주어와 거의 그대로 나타나서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 (5) "노라……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는 네 일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너를 도와 주는 것쯤은 나도 할 수 있어. 일하겠어. 너를 위해서라면, 노라……돌아서 어디론가 가 버리자꾸나."
"간다구, 어디로 가지?"('천국' : p. 97)
(6) "이것이 내 계획일세, 젊은이 차네는 어떤가?"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병원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유다' : p. 143)
(7) "여기서 나는 첫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없는 미개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썼죠. 그리고 나는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교의 원리를 설명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노인이시군요."('유다' : p. 315)
(8) "내가 당신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걸, 또한 가질 생각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제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저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천국' : p. 211)

한편 재귀 대명사도 번역문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재귀 대명사는 사실상 영어 문법 현상의 설명에 적합한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즉,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각각 선행사와 재귀 대명사가 되면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행위자 자신에게 되돌아옴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재귀화 현상은 영어에서 철저히 절(clause) 경계 안에 묶이게 되므로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어와 목적어의 동일 지시성(co-reference)을 가리키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어의 재귀화는 문장 안에서 뿐 아니라 문장의 단위를 넘어서는 담화(discourse)의 차원에서도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⁸⁾ 국어와 영어 재귀화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번역문이 부자연스러운 국어가 되는 일이 흔히 생긴다. 아래의 예들이 그러하다.

8) 김정아(1984) 참조. 특히 p. 32와 pp. 50~51.

(9)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그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털어놓고 싶었다.
(유다 : p. 216)

(10) 모래이는 제자리에 껏껏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결혼을 했고 그를 잊어버렸다니, 최소한 그가 유일하게 일생을 지속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을 배반했다니. ('유다' : p. 187)

(11)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이제 그를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유다' : p. 189)

2. 주격과 주제격의 혼란

국어의 조사 가운데서 그 용법이 가장 애매한 것이 {-은/-는}이다. 특히 이것이 주어의 자리에 나타날 때는 주격 조사 {-이/-가}와 분명히 다른 용법을 가지면서도 서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⁹⁾

{-이/-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인다.

1.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 새로운 정보가 도입될 경우에 쓴다.

(12) 저기 사람이 걸어간다.

(12') 저기 사람은 걸어간다. (?)

(13)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13')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

2. 날씨나 자연현상을 이야기할 때 쓰인다.

9) 주제(화제)의 일반적인 성격과 주어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채완(1979: 222~223)을 참조할 것.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화제는 한정적이어야 하지만, 주어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둘째, 화제는 주어와 달리 동사에 대해 선택제약을 받지 않는다.

셋째, 동사는 주어를 결정해 주지만 화제는 결정하지 않는다. 즉 동사가 주어이면 주어는 예측할 수 있지만, 화제의 선택은 동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넷째, 그 기능에 있어 화제는 주서술부가 관련되는 공간적, 시간적 영역, 혹은 개체를 한정해 준다. 반면 주어는 특별한 의미기능을 하지 않는 수가 많아서 가주어를 갖는 수도 있다.

다섯째, 여러 언어에서 동사는 반드시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화제는 거의 그렇지 않다.

여섯째, 주어는 재귀대명사화, 수동문화, 동일 명사구 삭제 등의 변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제는 통사적으로 문장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형에 관여하지 않는다.

요컨대 화제는 discourse의 문제이지만, 주어는 sentence 내의 문제이다.

(14)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14') 오늘 날씨는 참 좋군요. (?)

3. 화제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의 주어에 붙어서 쓰인다.

(15) 토끼는 앞발이 짧다.

(15') 토끼는 앞발은 짧다. (?)

4. 문장의 문법적인 주어가 정보의 초점일 때 쓰인다.

(16) 누가 왔니? 내가 왔어. (여기서 '왔다'는 주어인 정보이고 '내'가 새로운 정보로 초점이 주어진다.)

(16') 누가 왔니? 나는 왔어. (?)

한편 {-은/-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인다.

1. 문맥에 한 번 이상 나온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인다.

(17)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창수야.

(17')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이 창수야. (?)

2. 화자와 청자 사이에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인다. 이때의 주제는 생략이 가능하다.

(18) (그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18') (그 선생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

3. 총칭적(generic) 명사구에 결합되어 쓰인다.

(19)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19')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 (?)

주제가 나오는 문장에서는 초점이 서술부에 놓이게 되므로, 주어에 초점이 놓이는 문장과 구별된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대체로 영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 사이의 차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영어의 정관사(definite article)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정해진 어떤 것(따라서 기지의 정보)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는 정해지지 않은 것(따라서 새로운 정보)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국어의

{-이/-가}는 영어의 부정관사에, 국어의 {-은/-는}은 영어의 정관사에 각각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0) We keep a dog, and the dog is loved by all of us.

(20')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는 우리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는}을 많이 쓴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번역문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I am a boy.'라는 원문이 주어지면, 앞뒤 문맥을 고려함이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는 소년이다.'라는 번역문이 나오는 것이다. 필자는 대학 1년생들에게 간단한 영문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우리말로 옮겨 보도록 과제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은/-는}과 {-이/-가}의 용법을 주목해 보았다. 결과는 대상 학생 150명 가운데서 기대했던 용법을 사용한 것이 단 한 명뿐이었다. 이쯤 되면 이것은 비단 번역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사용상의 심각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21) Bertrand Russell, reared in this tradition, later recalled the period when he hoped that in time there would be "a mathematics of human behaviour as precise as the mathematics of machines." Then Darwin made another scientific revolution. (*What is History* : PartⅢ)

이 부분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과학의 세기를 이야기하면서 뉴턴과 스펜서와 러셀의 전통에 이은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 즉 문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새로운 정보로서, 이러한 사정은 앞에 쓰인 부사어('then')로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밑줄친 부분에는 주격토 {-이}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2) 요리인 겸 가정부인 미스 카파티만이 그의 편이었다. 그녀는 벌써 여러 해를 그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천국' : p.120)

이 부분은 이어지는 단락 전체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새로운 정보이더라도 방점 부분에 {-은}을 써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접속어와 문장부호의 처리

국어와 영어는 접속 표현을 담당하는 문법 범주가 각기 다르다. 전자에

서는 활용 어미가 접속 기능을 담당하고, 후자에서는 접속사라는 독립된 품사 범주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영어 원문의 접속사를 국어로 옮기게 되면 잉여적인 표현이 되어 오히려 문맥의 이해에 지장을 준다. 예컨대 조건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if')을 '만일……한다면' 식으로 옮기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번역문은 물론 자연스럽게 못한 국어의 문장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이같은 현상이 얼마나 깊이 번역문에 침투해 있는지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23) 왜냐하면 앞으로 적어도 백년 동안은 공평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한 것은 공평한 것처럼 우리들 자신과 또 모두에게 가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것은 유용하지만 공평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 p. 100)

(24) 그 이유는 단지 그 개개가 회복력 있는 자연에 미치는 힘이 작다는 것 때문인 것이다. (앞의 책, p. 32)

접속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문장부호의 문제가 또 있다. 영어에는 국어에 많이 쓰이지 않는 문장부호(세미콜론과 콜론)가 있는데,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접속어의 역할을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접속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국어로 옮기면서 문장부호를 그대로 옮긴다거나 생략해 버린다거나 하면 문맥이 대단히 불투명해진다. 다음의 예를 보자.¹⁰⁾

(25) 사회과학의 견해, 그리고 또 사회과학의 하나로써의 역사의 견해는 19 세기를 통하여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는 경우의 방법이 인간 현상의 연구에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대의 전반은 뉴턴적 전통이 활개치고 있었었습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메카니즘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었습니다. 1851 년에 출판된 '사회정학(社會靜學)'이라고 하는 허버트 스펜서가 엮어낸 저서의 표제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 : pp. 136~139)

위의 예문은 5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와 둘째 문장, 그리

10) 참고로 영어의 대표적인 문장부호에 대해서 그 용법을 소개한다.

- a. , 동위접속사, 경계선, 삽입구문
- b. ; 동위접속사, 경계선
- c. : 인용구문, 동격, 설명구문
- d. — 삽입구문, 경계선
- e. • 문장의 종결

고 넷째와 다섯째 문장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즉 19 세기를 통해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온 역사학 덕분에 과학적 방법론이 인간 현상의 연구에까지 적용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첫째 문장은 둘째 문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 문장도 나중 문장이 앞 문장의 예시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 관계가 번역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각 문장이 서로 독립된 것처럼 보여서 전체 내용의 유기적 구성을 해치고 있다. 그런데 영어 원문을 보면 이 연결 부분에 문장부호가 들어 있다.

(25') The conception of the social sciencies, and of the history among them, gradually developed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7) and the method by which science studied the world of nature was applied to the study of human affairs. In the first part of this period the Newtonian tradition prevailed. Society, like the world of nature, was thought of as a mechanism ;(4) the title of a work by Herbert Spencer, *Social Statics*, published in 1851, is still remembered.

위의 밑줄친 (7), (4)이 자기 적절한 접속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7)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리하여' 정도가 무난하고, (4)은 '그런 의미에서'나 '그 한 예로' 정도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둘째 문장에 '이르렀다'는 과정의 결과 표시 동사가 쓰인 이유가 분명해지고, 넷째와 다섯째 문장에서도 '메카니즘'이라는 용어와 '사회정학'이라는 제목의 연관성이 살아날 수 있다.

한편 삼입구에 쓰이는 문장부호(—)도 국어로 넘어올 때는 가능한 그 역할에 따라서 풀어주는 것이 좋다. 즉 수식의 역할이면 수식구로, 예시의 역할이면 예시구 등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26) 스위스 정치 제도의 진정한 본질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지극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특별히 성숙된 국민들을 가진 한 작은 국가의 경우라는——간과되고 있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이다. ('국제' : p. 162)

여기에 쓰인 삼입구의 성격은 설명 내지 구체화이므로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26') 스위스 정치 제도의 진정한 본질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지극히 특수한 상황, 즉 특별히 성숙된 국민들을 가진 한 작은 국가의

경우라는 이유로 간과되고 있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이다.

(27) 해방 후에 찾아오는 정적——비록 순간적이라 할지라도——그것이 지혜에의 통찰을 창조한다. (출처 미상)

여기에 쓰인 삼입구의 성격은 넓은 의미의 수식이다.

(27') 비록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해방 후에 찾아오는 정적이 지혜에 대한 통찰을 창조한다.

4. 화법 수용의 혼란

영어의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은 각각 국어의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으로 수용된다. 직접인용문은 인용부호(“ ”)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용문을 만드는 형태소 ‘라고’가 첨가된다. 그리고 간접인용문은 인용부호가 없고 인용 부분의 끝에 형태소 ‘고’가 첨가된다. 그런데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28) 그에 대한 대답은 “자유로부터 그것이 생겨나고 자유에 의지하다가 자유속으로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이다. (‘국제’ : p. 114)

이것은 위의 방점 부분을 ‘라고’로 바꾸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음처럼 문장부호와 함께 문장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인용문은 번역문에서 적절히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29)……the inductive view of historical method which I described in my first lecture : first collect your facts, then interpret them. (‘역사’ : p. 136)

아래에 간접인용문으로 옮겨 본다.

(29') 먼저 사실을 수집하고 나서 그 사실을 해석하라고 하는 내 첫번째 강연에서 기술한 바 있는 귀납적 관점의 역사학 방법론.

화법의 수용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제 표현이다. 국어는 본문장의 서술어가 인용문의 시제까지 담당함에 따라서 인용문과 본문장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데, 영어는 양자가 일치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예컨대 ‘He said that he was ill.’을 번역할 때, ‘그는 아프다고 말했다’고 해야지 ‘그는 아팠다고 말했다’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

다.¹¹⁾

5. 품사의 대응 문제

번역문의 품사 범주는 원문의 품사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우리가 한문 원문을 국어로 옮길 때 흔히 겪는 현상이다. 영어와 국어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영어에서는 표현의 강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의미를 함축한 단어를 다양한 품사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로 옮길 때 이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품사 범주로 옮겨 주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¹²⁾

(30) He finally concluded *easily*.

(31) He finally made an *easy* conclusion.

(32) The *ease* with which he finally concluded~.

위의 세 문장(30)~(32)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밑줄친 부분을 세 품사 범주로 달리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국어로 옮길 때는 문맥에 맞도록 적절한 범주로 옮겨야 한다. 예컨대 (32)의 문장을 원문의 품사 그대로 옮기면 아무래도 국어의 문장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은 모두 이러한 원인으로 어색해진 것이다.

(33) 그들은 질적인 구별의 우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장 대신에 비 성장을 대치시키는,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무가치를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 p. 46)

(34) 이 모든 것은 수천, 수만의 조직적인 협동의 덕분이었다. (‘국제’ : p. 139)

(33)과 (34)의 방점 부분을 품사 범주를 조정해서 바꿔 써 본다.

(33) 우선 질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34) 조직적으로 협동한 덕분……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지나친 명사문의 남용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

11) 묘출화법(represented speech)도 적절하게 직접인용문이나 간접인용문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

e.g.) He asked *was that enough*.

→그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물었다.

→그는 “그것이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12) 이 순위이동(rank shifting)에 대해서는 Jespersen(1931)에 잘 나와 있다.

서 첫 머리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데, 일본어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¹³⁾ 아래의 예문을 보자.

(35) 두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의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의 크라몬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애기 주디와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을 때는 참으로 기뻐하였다.

(‘천국’ : p. 109)

(36) 1983년 팔조바덴에서의 경영자와 노동자 대표의 만남으로 양자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협동적인 것으로 변환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제’ : p. 99)

(37) 인도의 가치관은 보다 협동적인 성향, 공동체적, 국가적 이익에의 보다 자발적인 복종의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국제’ : p. 119)

(38) 일단 필요한 기반이 완성되고 경제적인 추진력이 붙으면 협동형의 자유기업 경제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국제’ : p. 119)

위의 방점 부분은 문맥에 맞게 풀어 주어야 한다.

(35') 2층에서 시작한 살림을……

(39') 팔조바덴에서 이루어진 경영자와 노동자 대표의……

(37') 국가적 이익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방향으로……

(38') 자유기업형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점진적인 전환이……

6. 경어법 사용의 혼란

국어의 문장에는 영어에 없는 경어법 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주어에 존칭의 대상이 나타나면 서술어의 어미에 존칭을 나타내는 형태소 {-시-}가 이에 호응하게 된다. 그밖에도 주어의 사회적 신분 에 따라 서술어의 어미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것은 문장에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 파악에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하는데, 번역문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많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9) “자아, 이리 와요. 그렇게 떨지만 말고. 너 거기에 있었구나!” (‘천국’ : p. 49)

(40) “자, 가요. 이런 데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야 소용 없어. 밖은 쟁쟁해가 빛나고, 오늘 밤은 파티가 있잖아.” (‘천국’ : p. 61)

(41) “그럼, 꼭 와 주세. 차넌 내 친구이고 똑같은 신부끼리니까, 나는 차넌을

13) 이것은 の의 빈출에 기인한다.

제일 먼저…….” (‘천국’ : p. 140)

(39)에서는 {해요}체 어미가 대명사 ‘너’와 맞지 않고, (40)에서는 앞은 {해요}체 어미이고 뒤는 {-해}체 어미여서 맞지 않고 있다. (41)은 화자에 따라 적격성 여부의 판단이 다른데, 친구 사이라도 형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고 보다 친밀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어색해 보인다.

7. 적절한 어휘 선택의 문제

동일한 함의를 갖는 단어의 경우라도 각기 다른 분야에 쓰일 때는 그 분야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영어의 ‘reaction’이 물리학에 쓰일 때는 ‘반작용’이라고 옮겨지지만, 역사학에 쓰일 때는 ‘반동’이라고 옮겨지는 따위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단어의 올바른 번역어는 항상 문맥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아래의 단어들은 보통 서너 가지씩의 의미를 갖는다. (예는 ‘역사’의 pp. 136~139에서 뽑은 것임)

(42) human affairs : 인간현상, 인간사

(43) mechanism : 기계, 기계장치, 역학구조, 기계주의, 메카니즘

(44) still : 아직도, 여전히

(45) organism : 유기체, 조직, 조직체

(46) reaction : 반응, 반작용, 반동, 반발

(47) timeless : 영원한, 시간을 떠난, 시간을 초월한, 영구적인

(48) interpret : 해석하다, 번역하다, 통역하다

영어와 국어의 단어 구조상 차이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국어의 복합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살리면 대단히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¹⁴⁾

(49) to be struck, to receive a blow

(50) to earn one's living

(51) to strike someone to death

(52) to be feasted

(53) please put an end to my life

(54) to knock someone down

14) 예는 박명석(1973 : 56)에서 취했다.

- (49') 얻어맞다 (cf. 타격을 받다)
 (50') 먹고 살다 (cf. 생계를 벌다)
 (51') 때려 죽이다 (cf. 죽도록 때리다)
 (52') 얻어먹다 (cf. 대접을 받다)
 (53') 죽여 주세요 (cf. 숨을 끊어 주세요)
 (54') 때려 눕히다 (cf. 때려서 쓰러뜨리다)

(49)~(54)를 (49'~54')처럼 옮기지 않고 (cf)처럼 직역을 해 놓으면 지극히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1음절 한자어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이것은 추상명사를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아래의 문장이 그러한 예이다.

(55) 순간, 그 얼굴에서는 냉혹한 빛이 사라지고 철같은 엄격한 것으로 변하여 어느새 무자비할 만큼 자책의 념이 새겨져 있었다. ('천국' : p.115)

앞에 글자를 보충해서 '상념'이나 '사념' 정도로 만들어 주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성경의 국역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¹⁵⁾

8. 시제의 혼란

국어와 영어는 시제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국어는 현재와 과거만이 비교적 뚜렷이 대립을 보일 뿐이지만, 영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원 체계 아래에 각기 완료와 진행 및 완료진행 시제가 있기 때문에 정연한 12 시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어 번역문에서는 영어 원문의 다양한 시제를 시간부사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반영해 주어야 한다. 국어 번역문에서 특히 어색하게 눈에 띄는 것이 이른바 대과거의 표현인데, 동일한 문장 안에서 과거와 대립하지 않는 이상 과거형의 어미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15) 이정근(1976)에 보면, 30년을 사이에 두고 '새번역'에서는 종전의 1음절어가 2음절어로 변화되고 있다.

(예) 옥→감옥
 성→도성
 시→시간
 세→세금
 등→등불

(56) 앞서 인도에 대해 할애한 몇 페이지도 이와 유사한 기미를 시사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제’ : p. 120)

(57) 마가렛 메리 선생이 씨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했었어. (‘천국’ : p. 60)

위의 두 예문에서는 대과거를 나타내는 형태소 {-었-}이 없어야 오히려 자연스럽다. 하지만 다음의 예처럼 동일 문장 안에서 과거 시제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58) 그렇게 파멸되는 가운데서 그가 인생의 색은 속임수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웠다. (‘유다’ : p. 373)

9. 문장 길이의 조정

이것은 앞의 논의와는 성격이 다른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번역문의 논의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간단히 언급한다. II-3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에는 문장부호의 사용이 국어보다 잦으므로 문장의 길이도 자연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어 번역문에서는 이를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읊기는 것이 좋다. 아래의 예문을 검토해 보자.

(59) 그 보고서에는 알려진 지구의 비축물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도표가 있었다. 알려진 지구의 비축물이 현재와 같은 소비율로 보전될 수 있는 연수; 알려진 지구의 비축물이 계속 배증하는 소비로 보전될 수 있는 연수; 세계의 비축물이 현재 알려진 것의 5배만큼 크다면 그것이 증가하는 소비를 만족시키게 될 연수——이 모든 것은 19가지의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공업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자원들의 비축을 나타낸 것이다. (‘작은’ : p. 122)

(59)를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59') 그 보고서에는 알려진 지구의 비축물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도표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려진 지구의 비축물이 현재와 같은 소비율로 보전될 수 있는 연수. 둘째, 알려진 지구의 비축물이 계속 배증하는 소비로 보전될 수 있는 연수. 셋째, 세계의 비축물이 현재 알려진 것의 5배만큼 크다면 그것이 증가하는 소비를 만족시키게 될 연수. 이 모든 것은…….

10. 기 타

이 밖에도 영어의 수동태에 이끌린 이중 피동형의 빈번한 사용이라든가, 영어의 사물 주어 구문을 그대로 옮겨놓는 따위의 문제들이 있지만 익히

잘 알려진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번역문도 국어의 일부인 만큼 현행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국어 번역문도 원문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국어의 모습을 보여야 이상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 아래서 몇 권의 번역서를 택해서 그것이 번역문이기에 나타났음직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검토해 보고 그 경위를 유추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번역의 기교를 넘어서서 올바른 국어 사용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어의 문투에서 벗어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국어순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어의 'cricket'을 국어로 '귀뚜라미'로 옮겨놓는 것은 함축된 이미지의 파악에 실패한 번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영어에서는 '명랑한'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국어에서는 '살얼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번역자의 능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영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만큼, 그에 맞는 국어 문장의 구사력을 갖춘 번역자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희성(1987), 현대 번역 이론 연구, 사대 논문집 15, 부산대.
 김원식(1985), 번역과 번역학——언어학적 고찰——, 통역대학원 논문집 1, 외대.
 김정아(1984), 15세기 국어 대명사의 연구, 국어연구 62.
 박명석(1973), 한영·영한 동시 통역에 있어서의 문제점, 언어와 언어학 1, 외대.
 양인석(Yang)(1972), *Korean Syntax*, University of Hawaii 박사학위 논문.
 이익섭(1978), 한국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2, 서울대.
 이익섭·임홍빈(1984),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정근(1976), 성서 '새 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김형규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총.
 채완(1979),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
 Jespersen (1934),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